

### 한국경제

## SM, 왜 뒤늦게 동방신기 상표권 출원?

입력 2009.08.12. 오전 7:52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지난 4일과 5일 한국특허정보원에 '동방신기', '소녀시대', '소시', 'GIRL'S GENERATION', '小女時代', '슈퍼주니어', '슈주', 'super junior' 등의 이름으로 총 64개 부문에 상표 출원을 신청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는 SM이 동방신기(믹키유천, 시아준수, 영웅재중, 유노윤호, 최강창민)의 멤버 시아준수, 믹키유천, 영웅재중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진행된 일리어서 그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세 멤버가 소속사를 끝내 이탈할 경우 그룹명 사용 문제도 복잡해지고, 세 멤버

가 벌이고 있는 화장품 관련 사업에도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KIPRIS)에 따르면 SM은 5일 한글 '동방신기'로 의류, 신발, 가방, 문방구 용품 등 수백개가 넘는 각종 품목을 아우르는 총 4건의 상표를 출원했다. 또 하루 앞선 4일에는 '슈퍼 주니어'와 '슈주', 'Super Junior', '소녀시대'와 '소시', 'GIRL'S GENERATION'과 '少女時代'로 총 60건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앞서 SM은 동방신기의 중국어 간자체와 영문 약자인 'TVXQ!', 'SuperJunior', '소녀시대'와 '少女時代'의 음악 관련 상품의 상표 등록은 마쳤다.

상표 등록은 한글, 영문, 한자, 로고 등 다양한 표기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많은 가요 관계자들은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상표권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아 자본과 창의력을 투입해 만든 브랜드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SM이 멤버들과 법적인 분쟁을 겪는 과정에서 상표 등록을 신청한 것이 오해받을 소지는 다분하지만 필요한 절차"라고 말했다.

한편 동방신기의 세 멤버인 영웅재중, 믹키유천, 시아준수는 지난 달 31일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이로 인해 가요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경닷컴 bnt뉴스 연예팀 heejung@bntnews.co.kr

- ▶ SES 유진, 연예인이 아닌 분과 사귀 적어 없어요!
- ▶ 김연아, 3개월만에 귀국! 쇼트테마곡 '007 시리즈'로 도전해
- ▶ 박한별, "그동안 힘들었다. 멋지게 열애사실 공개하고 싶었다"
- ▶ 가인의 스킨십 노하우는 '야동'?
- ▶ 애인의 동거 제안, 할까 말까?
- ▶ [이벤트]올 여름에 유행할 메이크업은?
- ▶ [행사안내] 제1회 PUGCA ART 공모전

① 본문의 검색 링크는 AI 자동 인식으로 제공됩니다. 일부에 대해서는 미제공될 수 있고 동일한 명칭이 다수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체 검색 결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분류 제보하기](#)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① 이 기사는 언론사에서 **연예** 섹션으로 분류했습니다.